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의 변화와 흐름에 대한 고찰

-이블라지미르의 『소망의 기슭』을 중심으로-

박안토니나\*

## || 차례 ||

### I. 서론

### II.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에서 주제적 변모 양상

### III. 결론

## 【국문초록】

지금까지 한국의 인문학 논의에서 러시아어로 활동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고려인 작가들은 자주 누락되었다. 그들이 소수이고, 이들의 문학은 한국의 인문학 안에 서도 소수자 문학에 해당한다. 러시아어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작가들은 강제 이주 체험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러시아식의 교육을 받았고 우즈베키스탄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등, 1세대 고려인 작가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보인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는 고려인 작가의 글은 우즈베키스탄이란 땅에서 살아가는 민족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1990년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수교 이후에 발표된 이블라지미르의 작품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의 한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블라지미르의 소설에는 고려인 이주민 1세대가 자주 등장한다. 작품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낯선 곳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생존해 나가는가를 보는 일은, 멀리 있는

---

\* 우크라이나 남부 우신스키 국립 사범대학 외국어학부 객원교수

우리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고려인 인물들이 타인들과 다양하게 접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타인들은 주로 우즈베키스탄인, 러시아인 등이다. 고려인들은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타자들의 존재는, 모국어를 잘 모르는 고려인들이 ‘고려인’이라는 정체성과 자신은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시각을 구성하고 유지하게 돕는 것이다. 1990년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수교 이후에 발표된 이블라지미르의 소설은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석되고 연구될 가치가 충분하다.

주제어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 정체성, 타인, 낯선 곳, 정착, 변모, 모국어, 고려인

## I. 서론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에 대한 연구는, 특정 시기의 특정 작가에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지만,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그리고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는 (구)소련 동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한국과 수교를 계기로 그동안 북한에만 치중되어왔던 고려인 사회와 문단이 전반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고려인 문단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시와 소설뿐만 아니라 수필 문학, 이론 연구 등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다. 고려인 강제 이주 60주년을 맞이하여 1997년 9월 20일에 〈고려신문〉이 창간되었다. 고려인들의 신문이 창간된 것은 단순히 고려인 사회가 정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인 문단이 소생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 신문은 그 동안 쌓아올린 고려인 사회의 문화적, 예술적 성과를 재평가할 수 있게 도왔다. 또한 고려인 중심의 문학 활동을 유지·존속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원 속에서, 다른 소수민족

들의 문학과 함께 고려인 문학은 비교적 안정을 찾게 되었다.

또한 고려인 문학은 사회주의 이념적 지향성으로 부터 벗어나 새로움을 모색하고 위기와 재정립의 시기를 맞는다. 문단의 위기로는 고려인 문단의 노화와 한글 독자의 격감 현상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전 한글로 작품 활동을 해왔던 ‘구세대’ 작가들 중에서 김두철, 김종세, 김안나 등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1990년대 이전 현재까지 러시아어로 작품 활동을 해왔던 작가들 중에는 이배체슬라브, 박보리스, 김마르파, 김블라지미르, 김게나지, 김부트르 등이 있다. 이들은 그 동안 쌓아올린 고려인 문학이 유지될 수 있는 발판을 지탱해 왔다.

한편 고려인 문단은 ‘신세대’ 작가들의 등장으로 인해 작품 보급이 점차 증대되어 가면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신세대 작가들은 (구)소련이 아닌 독립된 우즈베키스탄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우즈베키스탄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작품을 러시아어로 쓰는 경우가 많다. 언어적으로 그들은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조선어를 말하며, 이 세 언어가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신세대 작가들의 등장은 고려인 문단의 재정립 과정이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 가운데 러시아로 글을 쓰는 문인들은 적은 편이다. 하지만 고려인 문단은 “능숙한 문인들은 우리가 넉넉히 보유하고 있다(『아리랑 1937』, 2008:5).”<sup>1)</sup>라며 자신의 위상을 드러낸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이라는 혼합된 문화적 공간에서, 다양한 언어와 인종들이 문화적으로 상호 충돌하는 속에서도 “언젠가는 내 글이 발간되리라

1)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публицистический альманах 『АРИРАНГ 1937』, Санъят, 2008. (『아리랑 1937』 문예집, 사니앗, 2008).

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아리랑 1937』, 2008:5)”이다.

여타 (구)소련 지역 작가들과는 달리,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작가들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글로 창작활동을 했던 작가들의 고령화이다. 그들은 고려인 문학이 본격적으로 한국 내에 소개되고 연구되는 시점에 이미 고인(故人)이 되었고, 따라서 연구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할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1990년대 이전에 발표된 한글 작품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일부 연구자이 고려인들의 문학의 범주를 1937년부터 1991년까지의 소비에트 시절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언어 면에서도 한글 작품들만 고려인 문학에 포함시킨다.<sup>2)</sup> 2017년 현재 한국 내의 문학 논단은 러시아어로 창작하고 있는 동포 문인들의 작품을 해외 한국 문학의 범주에서 편입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sup>3)</sup>

그러나 고려인으로서 고려인 문학을 읽고 있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어로 쓴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작품들의 내용은 대부분 예전에 한글로 집필된 작품들 못지않게 동포적이다. 비록 러시아어를 사용했을 지라도 고려인 작가들은 타지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여기에 와 살고 있는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 지금의 시대 상황

2)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1937~1991)』,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4, 53쪽.

3) “한국인(고려인) 작가로 인정되려면 반드시 한국어로 글을 써야 하는가, 아니면 어느 다른 언어로 글을 써도 내용과 사상이 한국적이면 또 작가의 민족 소속이 한인이면 한인(고려인) 작가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단순히 대답할 수 없는 딜레마이다. 어떤 사람들은 민족정신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학은 반드시 민족 언어로 써야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언어는 어떻게 사상과 내용이 한국(조선)적이면 한인(조선인, 고려인) 작가라고 주장하는데 내 생각에는 첫 번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두 번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옳다고 생각한다.” 양원식, 「중아시아,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학이 걸어온 길」, 『한국문학평론』, 2005, 33쪽.

에서 그런 감정을 녹여낸 작품들은 옛날의 구소련 작가도 다른 어느 나라의 작가도 아닌, 현 시대의 고려인 작가여야만 쓸 수 있다. 이런 고민을 담은 작품들이라면 집필 언어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고려인 작가군의 작품 경향이 국내 연구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 데가 있다.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연구된 타 지역의 고려인 작품들은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인 연구자들에게 발굴되어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문학은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문학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그것은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목소리로서의 문학이 처한 역사적 특수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언어적 요인이다. 러시아어로 쓰인 작품들은 한국인 연구자들에게 읽히기 어렵다. 이는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과학 기술이 발달한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극복될 수 있어 보이는 것이다.

창작활동의 언어가 한글이든 러시아어든 고려인 문학과 작가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옹당 그들의 역사와 조우해야 한다. 물론 이들은 (구)소련 체제에의 동화 과정을 경험 했다. 그 중에서도 ‘강제이주’는 고려인들에게 ‘역사적 흔적’이다. 알려진 대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구)소련의 ‘혼합 문화’를 수용하고 체제에 동화되었으며, 그것을 그들의 문학적 자양분을 흡수하며 발전해 왔다. 그리고 (구)소련의 해체 이후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성찰과 함께 새로운 변화와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sup>4)</sup>은 소수민족으로서 고려인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이 강하다. 또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력

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그리하여 고려인들은 '한민족 동포'라는 민족 관념과 우즈베키스탄 국민이라는 국민 관념을 동시에 형성시키고 있다. 이들의 문학은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사회적 변화, 그리고 한국과의 빈번한 교류에 따라 이전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우즈베키스탄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맞추어 고려인들의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작업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왔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이 담아내고 있는 이러한 시각의 변화와 흐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들이 처해 있는 현 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도울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고려 인문학이 동포문학으로 지향해가야 할 하나의 방향을 기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런 관점을 견지하며 이블라지미르가 2012년에 발표한 소설, 『Берег надежды (소망의 기슭)』<sup>5)</sup>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의 변화와 흐름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에서 주제적 변모 양상

독립 이후 고려인 문학에서는 정권이나 체제를 찬양하는 구호들이 사라 지지만 주제적 면에서 생존과 갈등 등에 대한 변모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고려인들은 다른 소수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소수 민족으로서 민족 정체성 문제를 다시 진지하게 성찰하였다. 그리고 이전의 고려인 문학과 같이 새 시대의 고려인 문인들은 자신들만의 체험, 낯선 문화 또는 낯선 타인과의 관계, 갈등, 접촉과 대응 등을 문학작품에서 형상화하였다. 고려인 작가들

4)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인구는 우즈베키스탄 조사국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약 18만4699명 전체 인구의 0.6%(소수민족 7위)를 차지하고 있다.

5) Владимир Ли, 『Берег надежды(소망의 기슭)』, Ташкент, 2012 г.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들은 그 공간에서는 쉽게 볼 법한 평범한 일상적인 인물들이며, 소설의 무대는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다. 그들은 우즈베키스탄 내의 소수민족으로서 살며 겪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작품 속에 엮어 내었다. 이 문장들이 인간으로서 기대하는 행복한 삶이나 삶의 면면에서 맞이하는 소박한 생활 감정에 대한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서술의 과정은 소설의 존재 방식과 아울러 그것의 존재 가치를 여실히 드러낸다.<sup>6)</sup>

그런 삶의 다양한 주제들을 소설화한 이블라지미르는 1947년에 타슈켄트 주 안그렌이라는 광산도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1975년에 타슈켄트 국립 대학 기자학과를 졸업하고, <레니니기치> 와 <고려신문>의 특파원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살고 있다. 2012년에 발표된 그의 작품집 『Берег надежды(희망의 기슭)』은 러시아어로 출간되었다. 『Берег надежды(희망의 기슭)』은 1937년에 강제이주를 당한 가족들의 정착과정과 삶을 담은 자전적 소설이다. 이블라지미르에 대한 소개는 몇 번 이루어졌지만 그의 문학세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요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작가 이블라지미르에 대한 연구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아니라 작품에 대한 분석과 평가의 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 비록 러시아어로 창작된 작품이지만 분석 작업을 통해 고려인 “소설 속에 반영된 문화와 삶을 읽어낼 수 있”<sup>7)</sup>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작업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과 고려인 문학의 변화 양상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우한용 [공]편저, 『한국 현대 소설의 이해』, 문학사상사, 1996, 107-116쪽.

7) 우한용, 『창작교육론』, 태학사, 2009, 131쪽.

『Берег надежды(희망의 기슭)』은 총 세 장으로 구성된다. 1장의 제목은 어린 시절의 꿈이다. 2장의 제목은 초막집에서이다. 3장의 제목은 사람들의 운명이다. 『Берег надежды(희망의 기슭)』을 통한 고려인 문학의 주제 양상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소설은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이주와 정착 과정에 대한 역사를 보여 준다. 자발적 이주가 아닌 강제 이주였다. 그렇게 도착한 낯선 곳은 너무나도 열악했다. 따라서 이 시기 정착 과정에 대한 증언들은, 정착 과정에 겪은 고달픈 삶과 그곳에 생존할 수 있었던 삶의 방식에 대한 서사로 이어진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삶이 고달픈 첫 번째 이유는 정착해야 할 땅의 자연조건이 너무 험악하고 천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한반도로 귀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완전하게 사멸되었다는 점이다. 그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자각했을 때, 그들은 현실 체제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임을 인정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험한 자연을 극복한 이야기는 이 당시 서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된다.

두 번째 주제로 등장하는 내용들은 낯선 타인과의 관계와 갈등 등에 대한 서술이다. 토박이 우즈베키스탄인들이나 그곳에 서식하는 타민족들과의 관계에서 가들은 갈등을 겪는다. 하지만 험한 자연과 함께 싸워 나가면서, 그들 사이에는 인간애가 충분히 형성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 적응한 고려인들에게 이 인간애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살아갈 힘이 되어 주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고려인 문학은 어느 정도 ‘문화의 중층성’<sup>8)</sup>

8) 윤대석, 「결혼 이주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 -다문화 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34집, 2014, 209쪽.



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세 번째 주제인 '자아정체성 확인'으로 이어진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 혼합된 문화에서 살아가게 되었지만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 후세대들은 고향에 대한 실제 경험은 별로 없지만, 조부모나 부모가 추억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뿌리가 된 그 곳에 대한 그리움을 형성하였다. 고려인 문학의 토대는 그러한 감정을 안고서, 어쩔 수 없이 척박한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자들의 감정이다. 그런 점에서 고려인 문학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꾸려가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들이 고려인이란 사실을 더욱더 철저히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존재들로서 문학적 향유를 수행한다.

## 1. 낯선 곳에서 재현된 생존 방식

한국어로 창작 활동을 했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1-2세대 문인들은 이념적인 면에 있어서 소련화된 측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이블라지미르와 같은 러시아어로 창작하고 있는 고려인 3-4세대 문인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재에 대해 갈등하면서 그것을 작품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이 현재 놓여 있는 삶의 조건, 현실적인 문제들을 작품화하고 있으면서, 가족이나 고려인 공동체의 갈등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인들은 존재하는 조건에 따라 그들의 문제를 다양한 형태로 작품화하고 있다. 이런 요소를 볼 때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소설의 주인공 “나”는 우즈베키스탄 안그렌이라는 광산도시의 고려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러시아식 교육을 받았다. “나”는 가족사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으며 이 작품의 서두는 친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 시작된다.

“나”의 할아버지인 이원극은 다른 고려인들과 마찬가지로 연해주에서 강제이주를 당한 인물이다. 우즈베키스탄에 온 이원극의 아내인 장아나스타시아는 연해주에서 병으로 죽었다. 아내의 죽음 이후 이원극은 “더욱 더 빠르게 늙어갔다”(187). 할아버로 이주를 당한 원극은 낯선 곳에서 어떻게 정착했는지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지 알 수 있다.

Вон Гык слыл мастером на все руки, но особенно хорошо клал печи. Не важно какую - русскую или корейскую. Ту и другую он мог так искусно выложить, что все вокруг только диву давались.’

원극은 손제주가 많았는데 특히 화로를 잘 만들었다. 러시아식이든 한국식이든 상관은 없었다. 어떤 화로든 간에 그는 만들기만 하면 주위에 사람들의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됐다. 『Берег надежды(소망의 기슭)』, 188쪽.

비록 낯선 땅에 왔지만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이원극은 자신의 손제주를 적극 사용한다. 그는 “러시아식”이든 “한국식”이든 상관없이 화로를 잘 만드는, 화로 제작 전문가였다. 이원극의 삶은 낯선 곳에서 나름대로 잘 정착하여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원극은 한반도에서 출생했고 만주를 통해 연해주로 왔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그는 매우 용감했고” 다른 조선인 청년들과 “러시아와 중국 국경”을 드나들며 살아왔다. 그러다 그는 다리에 장애도 입었다. 이원극은 71세 나이로 고향과 떨어진 낯선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낯선 문화에서 정착한 이원극은 죽음을 앞두고 막내 손자에게 다음과 유언을 남긴다.

На тот момент я был самым младшим из внуков. А потому дед любовно погладил меня по голове и сказал: - Кормите его белым хлебом, может, бог даст, большим человеком станет...

당시 나는 손자 중에 막내였다.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나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면서 말씀하셨다: - 애는, 흰빵으로 먹이고, 혹이나 신이 원하신다면 큰 사람이 될지도 ... 『Берег надежды(소망의 기슭)』, 186쪽.

마지막 유언은 “흰빵”이다. “흰빵”이라면 하얀 밀가루로 만든 빵이라는 것인데 “흰 밥쌀” 대신 “빵”을 먹이면서 키우라고 한 유언은 그가 고려인으로서 혼합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흰빵을 먹이면서 키워달라고 한 것은 소련 국가체제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인민이 가질 수 있었던 꿈이다. 그것은 풍요롭게 삶에 대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며, 그도 손자도 이 혼합된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원극은 친할아버지이고, “나”에게는 외할아버지도 있다. 외할아버지는 박계오르기이다. 사실 이원극과 박계오르기는 연해주에서도 친구였고 이 낯선 곳에서 이들이 “갈대로 엮었던 오두막(192)”에서 이웃으로 살았다(192). “나”의 외할아버지는 다른 고려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민이다. 외할아버지의 경우 “양반”이었던 그는 “연해주에서 긴 세월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자녀 다섯을 아주 엄격하게 키웠다”(188). 외할아버지는 러시아식 이름을 가졌고 작품에서는 한국식 이름에 대한 흔적이 없다. 이원극이든, 박계오르기도 다른 소수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이동금지법 때문에 소련의 공민증을 받을 수 없었다. 공민증이 없었던 고려인들은 195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우즈베키스탄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동금지법 폐지된 후 고려인들은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얻기 되었다. 박계오르기는 먼 곳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해 “가족들과 함께 조상의 땅 연해주로 떠났다”(189). 박계오르기의 기억 속에는 “잊을 수 없는 연해주의 그림 같은 풍경들”이 가득 차 있었고, “고려인 마을들과 그 정신, 언어와 풍

습”(189)들을 있었다. 그 기억을 따라 연해주로 떠난 외할아버지는 전쟁 후 “빈 논과 빈 마을들”을 보면서 실망을 했다. 정착과정에서 낯선 땅을 떠나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먼 곳에서 몇 년 후에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왔다. 우즈베키스탄에 돌아온 외할아버지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Его надежды, как видно, не оправдались. С тех пор в нем что-то надломилось: строже стали черты лица, а в глазах затаилась тоска. Через год он вновь возвратился в Ангрен и вместе с сыновьями стал строить на окраине города дом.

먼 곳은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가 마음에 품었던 것이 일순간에 무너졌고 얼굴은 더욱더 엄격해졌고 그의 눈은 그리움으로 가득찼다. 1년 후 그는 다시 안그렌으로 돌아왔고 아들과 함께 도시 변두리에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 『Берег надежды(소망의 기슭)』, 189쪽.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낯선 곳은 박계오르기에게는 그가 추구했고 그가 그토록 동경하던 먼 곳(연해주)보다 불편한 곳이다. 새로운 정착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제대로 항의조차 못한 채 살아내야 한 그의 내면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박계오르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먼 곳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 부러움과 냉소가 양가적으로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그리워했던 먼 곳은 고달프고 서럽기만 했다. 그 땅은 삶의 희망이나 가능성이 있는 곳도 아니었다. 그는 먼 곳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갖고 돌아왔지만 그 그리움은 곧바로 깨질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곧바로 낯설고 서로운 곳이 되었다. “정이 가지 않았던 이 땅에서” 외할아버지는 “낯선 토(土)에 옮겨 심어진 늙은 나무”마냥 생을 마감한다(189).

고려인들은 먼 곳인 한반도와 먼 거리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곳에 삶의 방식을 이어가고 생존을 이어가고 있었다. 낯선 곳에서 고려인들이 택한 생존 방식 중에 하나는 유랑생활이다. 한 곳에서 정착하지 않고 자유를 갈망하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희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상당 기간 동안 혼란이 지속되고, 그들의 삶 또한 이전보다도 훨씬 더 힘들어진다. 이러한 사회 상황에 놓인 사람들, 특히 주인공의 아버지인 이이선과 같은 세대는 그들이 소망하는 내일,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어디론가 떠나려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자유를 한껏 누리고 싶은 열망들을 가지고 있었다. 광산도시에서 자란 “나”는 아버지 이이선을 따라 이곳저곳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자유를 향해 “유랑 생활”을 했다. 아내에게는 “어디로 가는지 나도 아직 몰라”(205)라고 하고 “자리를 잡으면 연락할게(205)” 하면서, 결국 이이선은 어느날 어디론가 사라지고 3개월 동안 소식을 주지 않았다.

И вот однажды, ближе к полудню, к дому подъехала бортовая машина «ЗИС». Из кабины вышел отец, бодрым шагом прошел во двор, заглянул в комнаты и, никого не застав, постучался к соседям.

- Все живы и здоровы? Молодцы! А теперь в дом и - собираться! Едем на нов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어느날 그렇게 정오가 되기 전에 집 앞으로 지스트력차가 왔다. 차안에서 내린 아버지는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마당으로 와서 방안도 둘러보고 아무도 없어서 옆집 문을 두들겼다. (중략) - 모두 살아있고 건강하지? 잘 했어! 집에 가서 준비하자! 새로운 곳에 가자. 『Берег надежды(소망의 기슭)』, 205-206쪽.

가장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식구들 앞에서 나타난 아버지는 “거침 없는” 모습이었다. 고려인들의 집단 이주는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생산력

증대에 많은 기여를 했다. 연해주에서도 황무지를 개척하여 벼농사를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고려인들은 낯선 곳인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벼 재배에 성공했다. “나”의 가족도 세월이 지나자 자주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광산도시를 떠난 이이선의 가족들이 또 다른 낯선 곳으로 오게 되었다. 광산도시에 와서 이이선은 집도 마련하고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꾸려가고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또 다시 낯선 곳으로 떠난다. 주인공 “나”는 아버지가 왜 광산도시를 등지게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В места, где вынужденные переселенцы жили еще так, будто только вчера их выгрузили из товарных вагонов и спешно расселил и вдоль этой довольно крупной речушки, берущей начало за сотни и километров, в заснеженных горах.

이 곳은 강제 이주자들이 마침 어제처럼 기차칸에서 내려온 것처럼 수백킬로미터 이상의 거리가 된 눈이 덮힌 산에서 시작된 큰 강변에서 급히 자리잡게 되었다.

Колхоз, как вы понимаете, был коренной, узбекский,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йся на выращивании главной монокультуры - хлопка. Чем же тогда занимались здесь переселенцы? Конечно, сеяли рис.

집단 농장은 원주민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살았던 곳으로 주된 농산물인 목화를 전문적으로 지배한 곳이었다. 이주민들은 여기서 무엇을 했을까? 물론 벼농사를 했다. 『Берег надежды(소망의 기슭)』, 207쪽.

이주민은 이 지역의 광활한 황무지를 개간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원주민인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살던 천박한 땅이 개발된다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인 농민들과 고려인 이민자들이 힘을 합쳐 식량 생산 지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당국이나 관리들은

고려인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이었다. 그들은 고려인들의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했다. 작가는 고려인 이주민들의 생존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Прежде всего - забота о будущем своих детей. Многие мечтали дать им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Такое решение - и оно на тот момент, видимо, было единственно верным - диктовали переселенцам многолетний опыт выживания в экстремальных условиях...

먼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다. 많은 이들의 꿈은 자녀에게 고등교육을 주는 일이었다. 그 순간에 극도의 환경에서 힘든 생존의 경험이 유일하고 바른 결정으로 여겨졌다. 『Берег надежды(소망의 기슭)』, 248쪽.

고려인 이주민 1세대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방식으로 “자녀 교육”을 택했다. 광산이나 논에서의 경험들은 자녀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는 헌신적인 부모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잘 못한 것도 없이,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고통 받은 1세대들은 어떤 경우이든 그 자녀들이 다시 그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이다. 소수민족이지만, 그럼에도 교육이 자녀들의 미래를 밝혀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에 부모들은 소망하고 소망했다.

물론 모든 고려인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애쓰는 것은 아니다. 주인공 “나”의 9남매는 모두 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나”의 후배인 석에지크는 그렇지 않았다. 석에지크의 모습에서는 이주민들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다. 석에지크는 엄마와 어린 여동생과 같이 주인공 가족이 살았던 농장에 오게 된다. 석에지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 아파나시 할아버지 집에서 생활했다. 벼농사를 한 어머니는 아들 에

지크를 방치하며 결국엔 재혼을 한다. 어머니는 낯선 이 곳에서 “아들의 방치”와 “재혼”이라는 생존 방식을 택한다. “새아버지와 갈등이 심한 그는 석달도 채 되지 않아 가출”을 하게 된다(297). 가출한 석에지크는 “범죄”라는 생존 방식을 택했고 미성년자로 감옥에 가게 된다. 에지크에 “운명에 대해서는 누구도 결코 듣지 못했다”(297). 소설을 이렇게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고려인 이주민들에게 가능했던 다양한 생존 전략과, 그 귀결로 확보된 삶의 방식을 제시한다.

이 소설은 인간의 운명과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생활의 일상적인 문제,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고려인 문학의 변화의 흐름과 재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치적 이념의 도그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 2. 낯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에

소설 속에서 강제이주를 다루는 장면들은 아주 단순하게 개략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이이선의 가족들이 낯선 곳에 자주 이동하거나 낯선 타인과의 잦은 접촉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사실 당시 고려인들은 집단 농장을 중심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광산 도시에 살던 이이선의 가족들은 상사와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또 다른 낯선 곳으로 가게 된다. 특히나 낯선 이 곳에 낯선 타인 사이에 살았던 이이선과 그의 형제들 간의 갈등이 주목을 요한다. “나”는 9살 전에 광산도시 안그렌에서 살았다. “친척들과 타툰” 아버지는 “행복을 찾으러 떠났다”(190). 이이선과 형제 간의 갈등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없지만 형제 간의 갈등이란 일상에서 혼



하게 겪는 현상이다. 이 소설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주제가 있다는 것은 작가가 현실의 문제에 눈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주민 가족 간의 갈등은 오히려 낯선 타인과의 관계를 조금 더 잘 그리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낯선 곳에서 생존 방식에 대한 시각은, 가족, 동족 그리고 낯선 타인(우즈베키스탄인)과의 접촉에서 지속되기 때문이다. 소설 내용의 전개를 보면 다른 곳의 낯선 타인과의 관계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데 반해 이곳의 타인들과의 관계는 인도적이고 우호적이다. 물론 원주민인 우즈베키스탄인과 고려인 사이에 다양한 접촉과 갈등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낯선 곳에서 낯선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우호적이며 긍정적인 것으로 형상화했다.

소설에 등장한 우즈베키스탄인들은 친절하고 좋은 이미지로 그려진다. 천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맨손으로 황무지를 일구어 치절한 노력을 한 고려인들 옆에는 낯설지만 친절한 타인들(우즈베키스탄인)이 있었다.

Жили трудно, но дружно. Досуга почти никакого, но чтобы, скажем, был конфликт на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чве - такого никто не припомнит. Одной семьей жили украинец Григорий Даноуценко и татарин Гунар Шакиров, кореец Цой Се Иб и еврей Ян Гринблат, узбек АбдурахманМаматов и русский Федор Мариничев, белорус Михаил Снопок и донской казак Степан Богомаз.

사는것이 어려웠지만 화목했다. 인유가 없었지만 민족 간의 갈등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다. 우크라이나인 그레고리 다뉴센코, 타타르인 구나르 사기로프, 고려인 최인섭 그리고 유테인 안그린블라트, 우즈베키스탄인인 아브두라흐만 마마토프 그리고 러시아인 표도르 마리니체프, 벨로루시인 미하일 스노포크, 코자크 스테판보고마즈가 한 가족이었다. 『Берег надежды(소망의 기슭)』, 197쪽.

낯선 곳에서 고려인들만이 이주민이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인, 타타르인 등 타민족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친절했다. 즉, 우즈베키스탄인들을 비롯해 고려인들에게 도움을 준 타민족들이 고마운 타인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전해준다. 우즈베키스탄인과 타민족들에게는 고려인 이주민들이 마찬가지로 낯선 타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타인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초점을 작가는 다음과 같이 형상화하고 있다.

Видно было, что хозяин плохо говорит по-русски. Но его открытая улыбка и неподдельная радость говорили сами за себя и в переводе не нуждались.

- Мана, Люда-она, это моя жена, Ай гуль, дочки Санобар и Гульчехра... Не стесняй тесь, живите, как у себя дома. Здесь вас никто не обидит...

주인은 러시아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 티가 났다. 그의 열린 미소 그리고 가짜가 아닌 즐거움을 볼때 통역이 필요없었다.

- 여기 류다 아주머니 우리 아내 아이굴 그리고 두 딸 사노바르와 굴체흐라... 염려하지 마시고 집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Берег надежды(소망의 기슭)』, 208쪽.

낯선 타인인 주인 사키르 아저씨는 러시아어를 잘 못했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미소와 행동들을 통해 타민족들이 이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낯선 타인인 우즈베키스탄인 가족은 낯선 고려인 이주자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당신들에게 누구도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관계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사키르아저씨와의 첫만남을 잊

을 수가 없다. 우즈베키스탄어를 이해 못한 고려인 가족들은 타인과의 만남 또는 관계를 통해 상호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왔는지 볼 수 있다. 주인공 “나”는 새로운 곳에 와서 학교에 전학을 했고 지나이다 담임선생임을 만났다. 러시아인이었던 선생님은 “나”에게는 물론 낯선 타인이고 이 타인을 “경계”했던 “나”를 도와주셨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방랑자 아버지와 같이 또 다시 낯선 곳으로 떠났다. 여기서 만난 친구들과 선생님과 또 다시 헤어지게 됐다. 이번에는 광산도시도 아니고 강이 흐르는 농장도 아닌 호레즘으로 향했다. 이 곳 “더운 사막을 목전”에 두고 아주 따뜻하고 뜻 깊은 만남들이 있었다.

Не забыть мне и горячих, только что с жару лепешек, которыми угощала нас жена старого охотника Энебиби-опа. Она научила и нашу мать, дальневосточную кореянку, выпекать узбекские лепешки в раскаленном тандыре.

‘나’는 늙은 사냥꾼의 아내인 에네비비 이쭈마의 뜨거운 갓 구운 레표쉬카를 잊을 수가 없다. 연해주에서 온 고려인 우리 어머니에게 그녀는 뜨거운 화덕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빵을 굽는 기술을 알려줬다. 『Берег надежды(소망의 기슭)』, 321쪽.

낯선 곳에서는 또 다른 원주민들이 이주민들을 너무 따뜻하게 마중한다. 고려인 이주민들을 친절하게 마중하는 일이 우즈베키스탄인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즈베키스탄인들은 이방인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두 민족 간 상호관계는 곧 우호관계로 발전된다. 즉, 이블라지미르는 민족 간의 관계에 대한 냉정한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히려 어른들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고려인 아이들을 챙겨주는데 당시의

상황을 작가는 아래와 같이 들려준다.

Бахтияр в моей жизни появился осенью 1963-го. Мы пришли с ним в девятый класс новой школы одновременно, и поскольку оба были «новичками», посадили нас за одну парту. Я был натуральным «дичок», с набором врожденных и приобретенных комплексов - полукочевая жизнь в многодетной переселенческой семье, частая смена учителей и школьных друзей наложившая на меня свой отпечаток. Бахтияр же, наоборот, был из хорошей узбекской семьи, где воспитание основано на незыблемых общечеловеческих и чисто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инципах. Общим у нас было то, что семья была, так же как и наша, очень многодетная, и также часто меняла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바흐찌아르는 내 삶에서 1963년 가을에 나타났다. 우리는 새학생으로 새학교에 동시에 9학년에 전학을 왔고 단짝 친구가 되었다. 나는 '야생적 야만인' 이었고 출생부터 성장과정에는 얻은 콤플렉스 투성으로 유랑생활을 한 이주민 대가족에다가 자주 바뀐 교사와 학교친구들은 흔적으로 남았다. 바르찌아르는 반대로 민족 그리고 윤리적 원리를 바탕으로 좋은 우즈베키스탄인 가정에서 교육을 받아 왔다. 공통점이 있었다면 우리 가족처럼 대가족에다가 사는 곳도 자주 달랐다. 『Берег надежды(소망의 기슭)』, 324쪽.

또 다시 낯선 곳에 온 “나”는 새학교와 새친구들을 만난다. “나”는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에서 유랑생활은 소설 속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의 생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당시 적지 않는 고려인 이주민들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작가는 그것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는 셈이다. 왜 하필이면 작가는 “나”와 바흐찌아르의 만남에 대해 서술했을까? 몇 가지 생각해볼 수 있다. “나”는 “야생” 그리고 “야만”을 가진 존재이다. 거기다가 콤플렉

스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유랑생활을 한 고려인들의 대표이다. 당시 낯선 곳에서 낯선 타인과의 사는 고려인들의 위상을 되돌아보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친구 바흐찌아르하고 민족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다. 바흐찌아르는 같은 단짝친구였으며 그의 아버지는 우리의 우정을 존중했으며 “타구를 치는 법(325)”도 그 친구에게서 배웠다. 고등학교도 같이 졸업하고 대학진학도 친구 부모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었다. 소수민족으로서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의심과 멸시 속에 살았던 고려인들의 삶이 있었던 반면 민족 간의 우호관계와 미래를 꿈꾸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3. 자아정체성 확립의 형상화

문학은 한 민족이나 사회집단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결과물이다. (구)소련의 정권, 우즈베키스탄 역사 변천, 독특한 사회생활, 자연풍경, 타민족과의 관계 등이 혼합의 과정에서 세 개의 언어(言語) 즉 한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가 고려인 문학에 영향을 끼쳤다. 다시 말하자면 한민족문학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재 엄연한 우즈베키스탄 문학의 일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국민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우즈베키스탄 문학으로 편재되면서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현실과 고려인의 삶을 내용으로 한 문학적 정체성 또한 당연한 변화의 과정을 거쳤음은 자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인적인 것’과 ‘우즈베키스탄적인 것’의 혼합적 성격은 복잡한 길항의 양상과 내용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 국민, 우즈베키스탄 문학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고려인의 민족적 특성은 소수민족으로서의 민족적 특성인 소수민족주의이고, 고려

인 문학의 전개 과정은 우즈베키스탄의 소수민족 문학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분명하게 만들어 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위상 만들기’ 작업의 일환으로 그들은 현재 고려인의 삶이 존재하게 된 강제이주의 역사 등을 작품화하면서 동시에 민족 정체성을 획득하는 한 방법이다.

이 소설에서도 민족정체성은 물론 자아정체성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보인다. 낯선 곳에서 살았던 고려인들이 낯선 체험을 통해 자아정체성 확립을 형상화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타인(타민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삶의 형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sup>9)</sup>이 자아정체성 확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태어나서 사는 곳은 우즈베키스탄, 소수민족으로는 고려인, 한글로 소설을 쓸 수 없는 상황, 러시아식 교육을 받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오히려 고려인들의 자아정체성 배양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고려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현실 체제에서 다양한 고려인들의 정체성성에 대한 성찰은 다른 고려인 소설과는 차별적이다. 작가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이면서 동시에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소설에서 잘 반영하고 있다. 낯선 곳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향수를 달래기 위해 광산에서 일했던 고려인 이주민 1세대들은 “둔석 아저씨네 집에서 모였다”. 둔석 아저씨네 집에서 모였던 “아낙네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새벽까지 “화투를 쳤다”. 아저씨들은 “밤새 술을 먹고”, “모국어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옛날 추억”을 떠올랐다(195). 이런 고려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루하루 사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보여준 바와 같이, 그들은 고향땅을 그리워하면서도 낯선 땅에 잘 정착하여 삶을 부지해왔다.

9) 김연수, 「상호문화적 소통과 오해 - 헤벨의 달력이야기 <칸니트페어스탄> 분석을 토대로」, 『獨語教育』 제50집, 2010, 26쪽.

한편 작가와 같은 2세대들의 정체성 확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작품 속에 잘 그려지고 있다. 그것은 먼저, 고려인들의 의식주를 통해 알 수 있다.

Зимой мне нравилось валяться на корейской печи-кудур, покрытой камышовой циновкой. Дети постарше спали в другой комнате, а младшие вместе с родителями - на печи-лежанке, которая сохраняла тепло до самого утра.

나는 겨울에 갈대로 덮어진 온돌바닥에서 누운 것을 좋아했다. 조금 큰 형제들은 다른 방에서 자고 나이 어린 형제들은 부모님과 같이 아침까지 따뜻한 온돌에서 잤다. 『Берег надежды(소망의 기슭)』, 324쪽.

우즈베키스탄은 한반도와 멀리 떨어졌지만 고려인들은 온돌을 만들고 생활을 해왔다. 러시아인들과 달리 침대를 사용하지 않고 온돌 문화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고려인들의 의식주는 한반도와의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려인들은 겨울에 김장을 하고(226), 어릴 때부터 시래기 된장국, 찰밥, “배추든, 무든, 파든, 오이”로 담긴 김치를 먹고 살았다(244). 된장국, 밥, 김치는 고려인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고려인들은 낯선 곳에서 타인 사이에서 한민족적 문화 전통을 고수해왔다는 노력들이다. 타민족들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문화 차이는 물론 다양한 문화충돌, 갈등 등이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 확인과 충돌 등은 고려인들에게는 자아정체성 유지, 확립, 재구성 등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더욱 더 흥미로운 것은 고려인들은 중요한 말을 할 때 모국어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블라지미르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소상히 쓴

것일까? 작품에서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국어로 대화를 했다. 또한 아버지를 따라 집단농장에 온 “나”는 러시아학교에 입학했지만 학생 중 99%가 고려인 이주민 아이들이었다. “여기는 내가 처음으로 나와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을 보게 되었고, 이들은 얘기할 때 모국어를 사용했다”(212). 당시 소수민족의 모국어가 금기어였지만, 소설에서 언어적인 부각이 나타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들 수 있다. 하나는, 자녀들이 “러시아어 화”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행여나 민족의 언어 정체성을 잃을까봐 그것을 보존하도록 하기위한 모국어 사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조리한 당대 사회 현실 속에서 앞날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을 모국어로 토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동족끼리 긴밀한 관계 형성 또는 유지를 위한 도구로 모국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장면들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이 언어적 요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지만 내용적인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켜 있다는 작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Словом, передо мной был обыкновенный бомж - бывший интеллигентный человек без определенного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Необычным было только то, что он говорил по-корейски.

내 앞에 사는 곳 없는 인텔레젠트 였던 노숙자가 서 있었다. 그가 한국어 (고려말)을 하는 일이 어색했다. 『Берег надежды(소망의 기슭)』, 324쪽

“나”는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도 졸업했다. 그리고 기자로 생활을 할때 일이다. “나”는 단지 취재를 하기 위해 베가바드라는 도시로 간적 있다. 타슈켄트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중에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 “나”한테 질문을 한 누군가가 앞에 서 있는 노숙자였다. 노숙자를 만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모국어를 하는 노



숙자는 너무 어색했다. 눈물을 보인 노숙자의 구걸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을 그 노숙자에게 건넸다. “나의 모국어로 구걸을 한 노숙자는 처음이었다”(300). 당황한 “나”는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었지만 모국어를 하는 노숙자의 사정이 너무 궁금해서 그에게 점심을 사주기로 한다. 점심을 먹으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려인 노숙자가 “나”의 옛 학교 친구인 최봉수라는 점이다. 작가는 노숙자를 통해 민족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 당시 사회에서 낮은 타인으로 살아갔던 고려인 최봉수는 주류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고려인들의 모습을 요약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이들의 학교 생활은 모국어를 모르는 4, 5세대 고려인들의 “민족어 상실”에 대한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듯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소설은 (구)소련 해체 이후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정착하게 있지는 못하지만, 1세대의 고려인 문학에 비해 훨씬 다양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체제를 넘어 이들의 일상생활의 여러 모습과 개인의 심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 Ⅲ. 결론

이상으로 이블라지미르의 『Берег надежды(소망의 기슭)』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이 산출한 소설이 다루고 있는 주제 양상을 몇 가지로 살펴보았다. 이런 양상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려인 문학은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정착 과정에 대한 역사를 보여준다. 자발적 이주보다는 강제이주에 의한 이주가 주를 이루는데, 낮은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을 한다. 정착 과정에서 생존 방식에 대한 증언은, 이들

의 고달픈 삶에 대한 서사로 이어진다. 두 번째 주제로는 낯선 곳에서 타인과의 관계, 갈등 등에 대한 증언이다. 이 작품에서는 고려인들과 타민족들 간의 우호관계 등을 다루는 부분이다. 이것은 세 번째 주제인 '자아정체성 확립'으로 이어진다. 이 소설에서는 고려인 인물들이 많이 등장해서, 주로, 주로 이들의 정체성을 다루는 경우이다. 이러한 설정이 많은 것도 1세대들에게는 낯선 곳, 타인의 문화 속에서도 자아정체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립하려고 하는 고민들이 보인다.

앞으로 러시아어로 창작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에 대한 연구가 보충이 됨에 따라, 작품 분석도 더욱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공간의 특성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작가들의 고려인 문학사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면, 분명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대상이다. 이에 대한 더욱 정밀한 검토와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주로 이블라지미르의 『Берег надежды(소망의 기슭)』의 표면적인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한 것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서 러시아어로 창작된 작품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도 있다. 비록 러시아어로 창작되었지만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창작된 작품에도 검토가 필요하고 그 연구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연수, 「상호문화적 소통과 오해 - 헤벨의 달력이야기 〈칸니트페어스탄〉 분석을 토대로」, 『獨語教育』 제50집, 한국독일어문학회, 2010, pp.1~24.
- 김종희, 「구소련지역 고려인 문학의 형성과 작품세계-아나톨리 김과 박 미하일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권의 문학』, 새미, 2006.
-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1937~1991)』,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4.
- 박안토니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의 연구 필요성과 방향」, 『韓民族語文學』 第63輯, 韓民族語文學會, 2013, pp.69~94.
- 양원식, 「중아시아, 카자흐스탄 고려인문학이 걸어온 길」, 『한국문학평론』, 2005.
- 우한용 [공] 편저, 『한국 현대 소설의 이해』, 문학사상사, 1996.
- 우한용, 『창작교육론』, 태학사, 2009.
- 윤대식, 「결혼 이주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 -다문화 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연구』 제34집, 서울대학교 국어연구소, 2014, pp.201~229.
- 윤정현, 「중앙아시아 한인문학 연구」, 『비교한국학』 10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2, pp.205~253.
- 이명재 외,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국문화사, 2004.
- 이정숙,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의 보편성과 개별성」, 김종희 편,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국학자료원, 2010.
- 장사선 외, 『러시아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 월인, 2005.
- 정덕준, 「CIS지역 고려인 소설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9. pp.453~483.
- Владимир Ли, 『Берег надежды(소망의 기슭)』, Ташкент, 2012 г.

**Abstract**

Study on the Change and Trend of Korean-Uzbekistan Literature

-Focusing on Vladimir Lee's *The Coast of Hope* (Берег надежды)-

Pak, Antonina

Until now, Korean writers born in Uzbekistan who write in Russian have often been left out in the discussions related to Korean literature. They are regarded as a their literature is classified as minority literature even within the Korean literature. These Korean-Uzbekistan writers who wrote in Russian did not experience forced migration. As citizens of Uzbekistan who were educated under the Russian education system, they differ from the first-generation Korean writers in Uzbekistan. Hence, reviewing and analyzing the works of Korean-Uzbekistan writers will offer diversified understanding of Korean-Uzbekistan literature.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ing aspects of Korean-Uzbekistan literature with a focus on Vladimir Lee's work publish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Uzbekistan in the 1990s. Many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appear in Lee's novel *The Coast of Hope*. They want to escape this unfamiliar place called Uzbekistan, but it is realistically impossible for them to do so; given their situations, they manage a variety of survival strategies.

The Koreans in the novel have various contacts with others such as the Uzbeks and the Russians; these characters of other ethnicities have friendly relationships with the Korean characters. The lives of the Koreans carried out in relation to these other ethnicities contribute to establishing self-identity among the Koreans. They do not speak their native language, and yet they construct and maintain Korean viewpoints. Vladimir Lee's novel, which was published after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were established in the 1990s, shows the changing aspects of Korean-Uzbekistan

literature.

Key Word : Uzbekistan, Korean-Uzbekistan literature, identity, the other, unfamiliar place, settlement, change, native language, Korean-Uzbekistan

박안토니나

소속: 우크라이나 남부 우신스키 국립 사범대학 외국어학부 객원교수

전자우편: uztonya@hanmail.net

이 논문은 2017년 7월 10일 투고되어  
2017년 9월 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9월 8일 게재 확정됨.

